

한라인터뷰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

# “도민 체감 못하는 문화예술 문제… 이젠 질적성장”

“코로나19 회복 단계서 중책 맡아 무거운 책임감”  
“재밋섬 매입 ‘엎질러진 물’… 미래지향적 고민을”  
“예술전문인력 확충·생애주기별 정책 수립 필요”

제주지역의 인구대비 문화시설은 전국 1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보면 제주의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문화시설 수는 200.11개로 전국에서 인구 대비 문화시설 수가 가장 많다.

반면 제주도가 발간한 ‘2021 제주의 사회지표’ 결과 중 여가시간 활용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는 최하위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

이와관련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이런 시설을 해놓고 도민들이 즐기지 못하는’ 문제를 짚었다. “말뿐인 제

주문화예술의 섬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1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이승아 위원장과 도내 문화부 기자단의 간담회가 열렸다. 제12대 도의회 문공위 활동 방향과 도내 문화예술계 현안 및 문화행정의 문제 등을 들어보는 자리였다.

이날 이 위원장은 현재 지역 문화예술계 현안으로 ‘도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예술과 예술전문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어느정도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본 이 위원장은 “이제는 질적 성장 단계”임을 강조했다. 도민의 문화예술 참여도



이승아 위원장

를 높이고 즐길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충과 문화 예술기관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도민들의 일상의 문화향유 및 문화권 보장을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제주도의회의 중단 요구에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최근 ‘재밋섬’ 건물 매입 절차를 완료하며 본격 추진중인 ‘제주아트플랫폼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재밋섬 매입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며 “졸속처리” ‘불통행정’이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 더 이상의 도민 형세 낭비를 막고, 도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고민’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선8기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복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제대로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선심성 공약’ ‘불필요한 복지정책’이 되지 않도록 제주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기반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의 혹독한 시간을 견디고, 현재 회복단계에 있는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돼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면서 필요할 때는 협치도 하겠지만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견제기구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지원보다 예술인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른쪽기사 ejuh@ihalla.com

고재만의

## 제주어기림한관

<311>

구성: (사)제주어보존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오맹이가 동네 샘물통에 간 하도 안 오라가난 그디 맹거 오랏구나아. 오맹이 돌레 갖단오젠 혼난 막 심들어시켄게.”  
준네 골았저, “예게, 샘물통서 저 내창77장 갖단왔수게. 오맹이가 곧 오카부텐 동동 지들러마춤. 뱃도 과랑과랑하연 뿔도 하영 남데다”  
하르바지 골멘, “준네가 애써신게, 게나게나 오블 날세가 무큰무큰 더운게. 앞동네 삼춘이 골아라. 저 산 펜인 장예수가 느렸겐 하영 요스시 날세가 더와도 넘이 텅덴.”  
오맹이 골멘, “아고 누님마춤, 경하난 이추록 더암신게마춤”  
준네 골았저, “오맹이야, 이추록 더운 뱃디 넘이 나맹기지 말라. 마 이제 댜 떼어저. 늘 송키영 하영 먹으라아.”

\* 제주어 풀이

\*그디 맹거 오랏구나아 : 그곳에 다녀왔구나.  
\*돌레 : <어찌> ‘돌리레’의 준말인데, ‘테리러’의 뜻으로 쓰인 것. ‘에기 돌레 왔수다. 혼디 보내봅서, 에기 테리러왔습디다. 같이 보내버리십시오’ 따위  
\*내창77장 : 개천까지.  
\*오카부텐 : 울 줄 알고.  
\*갖단왔수게 : 갖다왔어요.  
\*동동지들러(동동 지다리다) : <익은말> 조바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무큰무큰(모큰모큰) : <어찌> 냄새 따위가 폭폭 피어나는 꼴. 연기 따위가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꼴. 날씨가 폭폭 쨍겨 더운 꼴.  
\*골아라 : 말하더라. \*장예수 : <이름> 한정 없이 많이 내리는 비.

고재만 화백(전문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날들

온라인제주도립미술관 ‘삶과 사람 사이’ 전시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모습을 ‘이전의 날들’과 ‘이후의 날들’로 살펴보는 ‘삶과 사람 사이’ 전시가 온라인제주도립미술관 가상 전시 공간에서 진행 중이다.

앞서 제주도립미술관이 도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전 수상 전시기획이자, 온라인제주도립미술관의 두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선 미술관 소장품 29점이 소개된다.

전시 첫 번째 파트인 ‘이전의 날들’에서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을 통해 그동안 누려온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느끼게 해주는 작품들을 보여준다.

두 번째 파트 ‘이후의 날들’은



김명철 작 '사이-삶의 노래'

감염병 확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경계하며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과 개인의 고립된 모습을 담은 작품으로 구성됐다.

전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오른쪽기사

##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제주 한경면 저지리에 조성된 저지문화지구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활성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마련된 저지문화지구 활성화 계획에 따라 (가칭)중광미술관 건립 계획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2024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해 (가칭)중광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출신 중광스님 작품을 활용한 기획 및 상설전시실, 수장고 등 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지상 2층에 연면적 700㎡ 규모다.

또 올해부터 2024년까지 75억 원을 투입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시설 확충 계획을 마련했다.

당장 올해에는 전시·소통공간,

음악활동 공간, 신체활동 공간, 회의·교육 공간 등을 갖춘 문화 거점공간인 생활문화센터가 신축된다.

오는 11월 착공해 내년 10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또 올해 한곡 현병찬 선생의 기증작품 및 전시공간을 활용하는 서예 전시관(2층, 연면적 494㎡)은 수증심의(2회)를 거쳐 작품 상태조사(7월~9월)를 진행 중이다.

또 추경 예산을 투입, 입주 예술인의 기증작품(조각, 10여점)을 활용한 문화지구 내 녹지공간에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조각공원, 산책로 등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저지 문화 예술인마을 문화예술행사도 진행된다.

강다혜기사 dhkang@ihalla.com

## 오는 23일 토요일 박물관 산책

국립제주박물관의 ‘토요일 박물관 산책’ 7월 넷째 주 프로그램으로 ‘태권 마살아트’ 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7시 박물관 야외정원에서 펼쳐진다.

박물관은 “‘태권 마살아트’ 공연은 한국인의 타오르는 열정과 의지를 신명 나는 아리랑과 함께 표현한 대한민국 최고의 년별 태권극 관객들에게 제공할 조각공원, 산책로 등 특화된 문화예술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0월 그간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됐던 저지 문화 예술인마을 문화예술행사도 진행된다.

## 홍겨운 타악기의 세계

올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오픈커션앙상블의 ‘2022 타악기와 썸타다’ 공연이 오는 23일 오후 5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는 오픈커션앙상블 대표 오승명의 지휘로 ‘마칭’,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OST’ 등 대중적인 음악과 전문적인 음악을 타악기 편곡 버전으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으로 꾸러진다.

또 타악기의 종류와 음색, 음악에 얽혀있는 이야기도 해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무료 공연이며, 입장권은 서귀포시 E-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오른쪽기사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정부 지원사업 잔여예산 신청자 모집

**신청 자격**    **제주시 노형동, 연동, 해안동 소재 상업용 건물 소유자**

호텔, 사우나, 공장, 병원, 마트, 창고, 냉장/냉동시설, 식당, 학원, 종교시설 등 전기다소비 시설 우대

**태양광 발전**

**설치비용 75% 무상지원**

- 고효율 최신 기자재 설치
- 전기요금 절감효과 탁월
- 경제수명 30년 성능보증

설치사례 : 서울사우나 태양광99kW

**연료전지**

**설치비용 95% 무상지원**

**대상 : 도시가스 사용건물**

- 전기 생산 및 온수생산
- 전기요금 및 급탕 연료비 절감
- 제주국제공항, 드림타워 운영중

**모집기간 : 예산 소진시 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정부 지원사업 상담/접수    **제주슬라에너지(주)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e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정부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